

중국의 에너지개발을 총괄하는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CNPC)와 최대의 국책투자회사인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 일본의 마루베니社, 이들 3개회사는 파푸아뉴기니에 석유광구개발권을 취득, 공동개발에 들어갔다. 이란에 필적하는 산유국인 중국이 해외에 본격적인 석유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또한 국내산 원유에 의한 자급을 기본으로 해온 중국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른 석유 수요의 급증으로 작년에 석유수입량이 처음으로 수출량을 넘어서고 있고 자국내 유전의 개발만으로는 부족하여 국외로의 자원확보가 불가결하게 되었다.

개발할 곳은 파푸아뉴기니 중부 내륙에 있는 캄시광구로 면적은 약 5백평방킬로미터이다. 파푸아뉴기니의 광산·에너지부가 이들 세 회사에게 광구의 개발권을 주는 것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개발권 보유기간은 6년으로 세회사는 올해안으로 시굴을 개시하여 2, 3년내에 생산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CNPC와 마루베니社는 작년 6월 중국국외로의 석유개발, 석유정제등의 사업전개에 포괄적인 제휴계약을 맺었고 이번의 석유개발프로젝트는 그것이 구체화된 제1호이다.

캄시 광구의 북동쪽으로 약 40km의 지역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유명한 유전지역인 쿠투부(KUTUBU)유전에서 하루 13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CNPC가 작년에 실시한 캄시 광구의 지질조사에서 원유부존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투자액은 시굴에 약 1억달러, 상업생산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약 10억 달러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굴·탐광 및 생산단계의 유전작업은 전적으로 CNPC가 맡게된다. CITIC와 마루베니社는 주로 개발자금을 부담하게 된다. 3社의 출자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루베니社가 15~20%, 나머지는 중국측이

출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에는 생산된 원유는 중국으로 가져가지만 일부는 아시아시장에 판매하여 외화수입도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개방정책에 의한 공업근대화의 가속으로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경유전등의 국내공급불량만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작년 처음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량이 수출량을 백만톤 초과했고 금년에도 수출대비 수입초과분이 7백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위해 중국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유전으로는 세계최대급으로 알려진 타림분지개발을 작년에 외국기업에 개방하여 국내에너지개발에 일본·미국·유럽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전환을 행했다. 그러나 타림분지의 유전개발은 자연조건과 수송상의 문제가 있어 실제로 국내수요를 어느 정도 담당하게 되는 것은 빨라야 90년대말쯤 되어야 될 것 같다.

파푸아뉴기니의 개발은 잘만되면 2, 3년후에는 생산개시도 가능하므로 중국은 조기석유조달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자기소유의 유전을 해외에 확보한다면 원유·석유제품의 수입을 줄여 외화의 절약도 꾀할 수 있다. 중국은 에너지 조달원의 다양화를 위해 금후 해외로의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석유 수입국으로전락하는 중국

